



문창진
보건복지부 차관

사회재정에 대한 인식변화가 중요하다.

오늘날 우리나라와 세계의 현실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변화를 잘 읽고 대처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사회재정을 둘러싼 환경의 경우에도 변화가 심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가재정 중 경제개발에 관한 지출이 사회개발에 관한 지출보다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국가재정 운영계획에 나와 있는 자원배분을 보면 2004년도에 중앙정부 통합재정 분야별 지출비중에서 ‘복지 및 삶의 질’로 표시된 사회재정의 분야가 23.4%를 차지하여 ‘경제사업’으로 표시된 경제재정 분야의 23.1%를 넘어섰고, 2005년도도 25.2%로서 19.9%의 경제재정 분야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경제사업의 지출비중이 전체

지출의 20%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다가 최근 20% 이하로 줄어들었고, 복지 및 삶의 질 분야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재정구조의 변화를 알려주고 있다. 특히 현재 OECD국가들을 보면 복지 및 삶의 질이 54.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경제사업은 9.1%에 불과하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시대적 추세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사회재정분야의 지출에 대해 마냥 좋아하기만 하는 일은 아닌 것 같다. 많은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그 예산이 잘 사용되는 경우에는 좋은 영향이 커질 수도 있지만, 잘 못 사용되는 경우 국가 발전에 더 큰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세계화 경쟁에서 사회재정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고, 그 역할에 따라 경제전쟁의 승패를 가름 지을 수도 있다고

한다. 한 경제가 가지고 있는 생산요소의 종류는 물적 자본,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세계화나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과 같은 현재의 상황은 점점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크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자본은 물적 자본이나 인적자본보다 그 형성이나 축적기간에서 훨씬 길며 이동성이 없다는 것이다. 세계화에 따라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은 만일 부족하다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서라도 갖추는 것이 용이해 졌지만, 한 사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사회구성원간의 상호작용과 학습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해진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사회재정이다. 따라서 사회재정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는 세계화에 의한 경쟁에서 살아남아 경제적으로 번영을 하는데도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사회재정이 운영 되려면 사회재정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보건복지 재정을 예로 들면 지금까지는 노령, 실업, 질병 등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로 인한 소득의 중단이나 예외적 비용에 대해 사후적으로 소득을 보장해주는 소극적 역할에 충실해 하는 것을 주로 매달려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사회재정 지출로는 저출산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 등 새롭게 요구되는 환경변화의 요구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재정을 설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하다. 생산적이고 투자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찾아 그 개입의 효과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지출수준을 결정하며 그 결과에 대해 성과관리적인 과정을 통해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사회지출의 계층간, 지역간 불평등을 완화하여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90년대초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겪었던 스웨덴은 '94년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0.439로서 OECD에서 가장 불평등한 지표를 보였으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230으로서 가장 평등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스웨덴의 사회재정이 효율과 복지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사회양극화 문제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지 오래이다. 적극적이고 사전예방적인 사회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종전의 “지출적” 사회재정에서 “추진적” 사회재정으로 그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관계는 사회재정의 역할 변화를 디딤돌로 할 때 더욱 성숙해 질 것이다. **문창진**